

# 포르투갈·남아공 등 '민주정신' 헌법에 수록... "핵심 가치"

## 오월, 모두의 정신으로

### <3> 해외 사례 분석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겼다면 어떤 의미와 변화가 있을 것인지는 해외 사례를 통해 가능해 볼 수 있다.

학계에선 대표적인 가능자로 5·18민주화운동 처럼 시민들이 국가의 불의에 항거한 역사가 있는 포르투갈 헌법을 꼽는다.

포르투갈 헌법도 우리나라처럼 전문이 있다. 일명 '카네이션 혁명' 후 1976년 4월 제정된 제헌 헌법에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를 확립한 과정이 명시돼 있다.

독재 종식 '카네이션 혁명' 등 중심

항거 정신 명시·과거 성찰 '선언'

프랑스·스페인도 계승 의미 담아

"최고법 함축... 수록 절차 서둘러야"

수도에서 이름을 따 '리스본의 봄'이라고도 불리는 카네이션 혁명은 1974년 4월 독재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청년 장교들 주도로 일어난 봉기가 발단이 됐다.

우리나라의 군부 쿠데타와 조금 달랐던 건, 시민들이 군인의 총에 카네이션을 꽂아주며 지지해 보냈다는 점이다. 이후 제헌 국회가 들어서고

헌법이 새로 제정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있었지만,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전문은 이를 '구국운동'으로 명시했다.

이는 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 새 헌정질서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이어 저항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도 평가받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헌법 전문에도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중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미가 있어 눈길을 끈다.

전문에 잘못된 역사는 '아파트헤이트(Apartheid)'로, 독재 정권이 실시한 인종차별 정책이다.

법으로 공식화까지 했던 이 정책은 인종차별이 제도화된 대표적 사례로 백인 정권이 집권한 1948년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져 왔다.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이에 맞서며 장기간 반아파트헤이트 운동을 전개했고, 국제사회 역시 남아공에 제재를 가했다. 거세진 압박에 집권 정권은 결국 백기를 들었고 1990년 ANC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가 27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이후 선거로 출범한 넬슨 만델라 정부는 의회와 함께 헌법을 마련해서 1996년 공포했는데, 전문에는 "과거의 불의를 인정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자유를 위해 고통받은 이들을 기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과거의 역사를 통해 민주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헌법에 담겼다.

프랑스의 경우 대혁명의 결과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스페인은 '프랑코 독재' 이후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위에 새로운 질

서를 세우겠다는 뜻을 헌법에 담자 명시했다.

이렇듯 헌법 전문 속 역사는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이 어디서 왔고 지향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한다.

신군부의 국가 폭력에 맞선 저항의 역사면서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극복한 힘이었던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명식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헌법학 교수는 "포르투갈이 독재 종식 혁명 정신을, 남아공이 잘못된 과거를 명문화한 것처럼 헌법 전문은 국가가 계승해야 할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선언하는 공간"이라며 "신군부의 불의에 맞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최고법에 담은 절차가 더는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연상 기자



11일 오전 광주 서구 세하동의 한 쓰레기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서구는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차량은 주변 도로를 우회해달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김예리 기자

## 광주·전남 재활용업체·축사·폐차장 화재 잇따라

### 인명피해 無... 연기 확산에 안전 문자

광주·전남 지역의 재활용 업체와 축사, 자동차 폐차장 등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11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구 세하동 한 폐기물 수거 업체의 폐기물 창고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장비 27대와 인원 88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2시간25분 만인 오전 11시50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연기가 인근 주택가로 확산해 서구는 안전 안내 문자를 4차례 발송했다.

같은 날 오후 12시30분께 무안군 몽탄면 한 축사 창고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소방인원 20명과 장비 8대가 투입돼 신고 접수 32분 만인 오후 1시2분께 진화했으며 인명 및 가축 피해는 없었다.

다만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면서 무안군은 "축사 화재로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은 대피하고 차량은 우회해달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오후 2시19분께에는 나주시 한 자동차 폐차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인원 30명과 장비 12대를 투입해 신고 접수 40분 만인 오후 2시5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각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연상·윤찬용 기자



## '묻지마 살인' 20대 사이코패스 기준 '미달'

### 흉기 사건 전 스토킹·성범죄 피소

심야 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A(24)씨를 상대로 최근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결과 점수가 5점 미만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선 통상 40점 만점 중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보고 있어 A씨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와 별도로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우발적인 범죄였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범행 전후 행적에서 계획 정황이 엿보여 사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씨가 지난 5월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외국인 여성은 그에게 스토킹과 성범죄를 당했다며 다른 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해당 고소 사건도 남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두 범행의 연관성도 들여다 보고 있다. /안재영 기자

## '여고생 사망' 광주 고교생들 추모 성명 이어져

### 가해자 엄벌·재발 방지 대책 촉구

### 일각선 피해자 학교 태도 지적도

최근 '묻지마 살인'으로 여고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광주 지역 고교생들이 잇따라 추모 성명을 내며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11일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남 고등학교·수원고등학교 학생회, 경신여자고등학교 교직원집회 배향, 광주여자고등학교 방송부 등 고등학교 학생들이 차원의 성명문 발표가 수일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성명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흉기 피습으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추모하고 피의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맥락은 동일하다. 피해자의 친구라는 몇몇 학생은 사건 이후 학

교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글은 SNS에 올리기도 했다.

한 글에는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려 했지만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학교가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추모 기간에도 교내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거나 "추모 활동이나 안내가 부족했다"고 서술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발인 당일 노래와 운구 행렬에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했다"며 "학교는 학습 공간인 만큼 전체적인 분위기를 크게 바꾸기보다 학생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자율 추모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학교 교직원 일동은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학생들보다 뒤늦은 추모 성명을 냈다. /윤찬용 기자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

한 번에, 한 눈에, 한 손에!  
1천만 고객이 선택한 NH국민은행!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확인하세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스마트한 카드!  
올바른 NEW HAVE 카드

- 기본예금이자 0.7% 상승으로 책정
- 스타예금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국민은행 연리지 무이자 저축상품
- 농협 연리지(연리지) 스마트예금

농협은행이 자랑하는 NH농협은행

- 20~60세, 유망직도 간편 가입 가능
- 100세까지 비정규직(해당직업 가입시)
- 정신형 담보 저축
- 첫날부터 보험 및 첫날부터 보험 가입자 1% 할인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 환전 | 해외여행 가까운 서광주농협에서 환전하세요
- 해외송금 | 안전한 서광주농협 해외송금으로 안심하고 보내세요

농업인의 내일을 키우는 금융 농업인 함께 합니다.

- 농업인 전용 금융지원
- 농지담보대출 특화상품
- 농지대차금 대출인도 최대 80%
- 부유 농지 활용 자금 마련
- 영농·생활자금 지원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온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비 들 지 점 062)381-1971~2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동림아나로지점 062)531-774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동 운 지 점 062)528-2640~2	용 신 지 점 062)526-022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아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영동센터지점 062)361-4472~4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와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지역 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